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꿈꾸며

《인간적인 것과의 재회》 펴낸 박호성씨

모두는 꿈의 후예가 아니라 미꾸라지 후예들입니다.”

‘미꾸라지 후예들’의 민족의식에 대한 비판도 전개한다. 유학시절 ‘북소리’를 들으며 민족정신을 느낀 것부터, 남북통일에 대한 정책부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천부적 의무가 아닐까 하는 사상론까지 모두 담았다.

지식의 오용에 대한 비판도 신랄하다. 지식은 잘 이용하면 저항의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이용하면 어용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지식인의 냉철한 비판정신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개인주의적 사고를 극복하고 집단적 평등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이룩해야만 같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갖가지 단상은 결국 ‘인간’으로 귀결된다. 이웃과 사회를 맑은 심성으로 바라볼 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정치사상가의 ‘꿈’이 녹아 있다. 앞으로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룬 저작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펴낼 계획이다. 수상록의 끝선은 그 저작의 첫선과 맞닿아 있다.

— 오완진 기자

정치학자 박호성 교수(59, 서강대 정치외교학)가 수상록 《인간적인 것과의 재회》(푸른숲)를 펴냈다. 우리시대 논객답게 “막가이즘식 저지름의 은총”이라고 일성하지만, 어느덧 중년이 되어 삶의 뒤안길을 지긋이 바라보는 그의 눈은 참으로 밝다. 정치학자의 냉철한 이성과 때묻지 않은 소년의 감성이 우러나는 유려한 문체를 대하고 있으면 이런저런 삶의 고뇌가 하잘 것 없게 느껴진다.

“일상적 단상이 떠오르거나 사회적 현상을 지켜볼 때면 습관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지요. 바로 지금이 삶을 압축적으로 정리할 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쯤 다독거리고 싶었기 때문일까. 글 중에는 체험적 이야기가 많다. 유학시절 지독히 고생했던 이야기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조우 중에 느꼈던 생각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사회에 대한 냉철한 비판도 함께한다.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면, 골치아픈 철학서를 뒤적이지 말고 차를 몰고 나가보라고 권한다. 예컨대 거리의 트럭은 철갑부대, 버스는 공수부대, 택시는 기동타격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오토바이, 그리고 대기만성형 저격병인 승용차들이 ‘속도권’에 몰든 우리 사회의 경쟁적 이기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역설한다.

“사회는 삶의 공동체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주의의 가투가 벌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클래식 거장들의 삶의 뒤안길

《클래식 사람의 음악이다》 펴낸 최영옥씨

거장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범속한 이들에게 절정의 순간만으로 기억되는 관심이 있다. 그들도 고뇌와 번민의 포로일 수밖에 없었다는 평범한 진실이 예술의 광휘에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삶의 고통을 정직하게 수락함으로써 인간정신의 정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음악칼럼니스트 최영옥씨(36)가 펴낸 《클래식 사람의 음악이다》(문예마당)는 무대의 배경으로 사라져버린 20세기 음악거장들의 삶을 우리 앞에 당겨 놓는다.

“위대한 예술가는 우리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일상인이 쉽게 타협하거나 좌절하는 반면 거장들은 그것을 단고 일어섰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20세기 음악가의 ‘만인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지휘자의 ‘제왕’으로 등극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부터 뮤지컬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한 앤드류 로이드 웨버까지 음악거장 25인의 삶을 단아한 문체로 되살려놓았다. 평생을 꿈꾸어 살아야 했던 피아니스트 클라라 하스킬, ‘오페라의 디바’로 생의 절정에 올랐지만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던 마리아 칼라스 등 생의 뒤안길에서도 음악에 대해 신화적 열정을 바쳤던 아름다운 삶을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 대중들은 고급문화의 장에서 소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적 감수성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문화현장에 올바르게 접속시키는 것이 전문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EBS의 《음악과 함께 한 삶》에서 방송되었던 음악 다큐멘터리의 대본과 음악잡지에 실렸던 글들이 이 책의 밑바탕

이 되었다. 중고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운 것이 계기가 되어 대학 졸업 후 음악칼럼니스트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다. 월간 《피아노 음악》·《음악교육》 등의 기자생활을 거쳤고, EBS에서 《클래식과 함께》·《예술의 광장》 등의 집필과 진행을 맡기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삼성그룹의 협찬을 받아 기획·진행했던 《르네상스 영상음악 감상회》.

“산간오지 마을에서 한겨울에 천막을 치고 나무를 떼가며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루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열린 광주 금남로의 문예회관 공연도 성황을 이뤄 놀라게 했어요. 음악에 대한 열기가 감동적이었죠.”

현재는 아리랑 TV의 《Songs from the Heart》에서 한국가곡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집필하고 있다. 다음에 독자와 만나게 될 책은 클래식 입문서.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해설해나갈 계획이다. 음악전문가라면 머물기를 주저해왔지만 이 책을 계기로 이제 음악과의 질긴 인연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다.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음악을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 박천홍 기자





세금, 알면 돈 모르면 손해

《알면 이기는 조세소송》 펴낸
윤종훈씨

“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한 구제소송율이 현재 50%를 넘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와도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부당 과세하는 까닭은 예규와 기본통칙 등 그릇된 업무처리 지침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판례보다 상부의 지침이 더 중요하죠.”

공인회계사 윤종훈씨가 이런 그릇된 업무처리지침들을 모아 《알면 이기는 조세소송》(사회평론)을 펴냈다.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국세기본법·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취득세 및 등록세 별도 사례와 해설, 관련예규, 판례를 담았다. 대법원 판례는 이 책에 나오는 사례에 적용된 세무당국의 업무처리지침이 잘못됐다고 밝힌다. 곧 이 책에 실린 사례라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잘못됐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예규와 기본통칙을 곧장 철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특정 사례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된 과세는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만, 불복절차를 밟은 경우만 구제되죠.”

대표적인 잘못된 예규는 직장 소재지와 다른 시에서 거주하다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3년 안에 이사하는 경우다. 관련 법률을 보면, 같은 지역의 직장에 다니다가 전근갈 경우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두었지만 다른 지역의 직장에 다닌 경우에는 걸맞은 법규가 없어 예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못박았다.

“이 경우가 확대·유추해석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확대·유추해석의 경우, 구제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비과세대상이라고 판결내렸습니다.”

공인회계사가 되면서 세법대중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는 이 책 외에도 《억울한 세금 내지 맙시다》(보리)·《바람난 여자가 알아야 할 세금》·《택시 운전사에서 회계사까지》(여성신문사) 등 일반인을 위한 세무관련서를 펴냈다. 하지만 세법을 안다 해도 일반인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싸움걸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책이 필요해요.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일반인들이 제대로 인식해야만 세무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조세소송은 시민운동으로 발전돼야 합니다.”

참여연대 조세팀 전문위원으로 일하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도 《노동조합원이 알아야 할 경리지식》·《소기업사장들이 알아야 할 경리지식》 등과 ‘공인회계사 세계의 실상과 허상’을 다룬 책을 쓸 생각이다. 어쩌면 그는 세무당국이 아니라, 세법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과 두려움을 상대로 싸우는지도 모른다.

— 김연수 기자



출판사 홈페이지 구축 상담환영!



저렴한 비용으로 서버 구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전산오원 · 웹디자이너가 필요하십니까?
365일 24시간 전문 홈페이지 운용 능력을 제공합니다.

코야트는 인터넷을 통한 귀사의 사업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Web Hosting 서비스 / Web Magazine 제작 / Homepage 제작 / 서버구축 및 관리

KOART Tel: 275-2617 (#108, 113), 268-8276 (직통)
http://greentek.net/~koart

- ▶ 인터넷출력 국내최초 실시!
- ▶ 다국어 출력의 선구자!
- ▶ 자동대첩 최초 시작!
- ▶ 4.6전지출력 시조!



● 토탈드림스캔 포함 분판출력
24시간 서비스 가동!



188GB

365일 무정지시스템

강력한 시스템 운용으로 대용량의 작업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 (월간지 처리능력 탁월)

다국어 출력서비스

매킨토시에서 다국어 입력이 필요하신 분은 그린테크로 오십시오.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한글Quark에서 입력이 가능한 로알다국어 폰트 QuarkXtention 및 서체메뉴얼을 드립니다.

- 짜임새 있는 디자인을 지원하는 삼분각 서체 보유
- 확장한자, 일본어, 대만어 포함 '98 한글서체 전용보유

4x6전지 필름분판출력 / 토탈드림스캔서비스 / HP컬러실사출력 / 자동제판 / CD백업



Tel: 275-2617 (안내118), 268-8276 (상당)
http://home.greentek.net/